

배포일시	2025.2.27.	문의	(담당)서비스디자인실 윤성원 실장(031-780-2230) (담당)서비스디자인실 강민두 연구원(031-780-2238) (담당)유오식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 회장(010-9210-6510)
보도일시	2025.2.27.		(홍보)성과홍보실 채운병 실장(031-780-2030) (홍보) 성과홍보실 홍보소통팀 박현선 주임연구원 (031-780-2025)

공공부문 디자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 열려

- '제1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

-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 이하 KIDP)과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회장 유오식, 이하 공공협)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수) 성남에 소재한 KIDP 본원에서 개최됐다.
 - 2022년에 발족한 공공협은 국내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모임으로, 정보 교류와 정책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 디자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다. (회원 수 약 130명)
 - 공공부문 디자인의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디자인 실무자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협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차례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디자인의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주제를 결정했다.
 - 또한, 단순 발표 방식 대신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컨퍼런스(Unconference)*’ 형식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하는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언컨퍼런스(Unconference): 전통적인 컨퍼런스네처럼 발표자가 정해진 강연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열린 형식의 회의

□ 파주시 도시계획과 강미정 도시디자인팀장, 한국도로공사 기술심사처 김명운 주무관, 강동구 도시경관과 김유선 주무관이 실무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관련 쟁점에 대해 다음 3가지 주제를 발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소주제별로 각 여덟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 후 그 결과를 공유했다.

▲공공기관 디자인직의 전문성 강화 및 확대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협력을 촉진할 제도 만들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

① 첫 번째 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디자인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자인직 공무원의 채용 기준 강화,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 확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디자인직 공무원 채용 시 실기 시험 도입과 채용 절차 개선,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이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② 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공공부문 디자인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기관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뤘다.

○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 운영, 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프로젝트 성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의 해결책이 제시됐으며, 향후 공공협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③ 마지막 주제 토론에서는 일부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서 평가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디자인 공모 심사 기준 정립 등의 개선책이 논의됐으며, 관련하여 도출한 대안들을 공공협이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 컨퍼런스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협의회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공협 명칭 변경 및 로고 활용 방안, 디자인 담당자 등록 확대, 디자인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온라인 카페 및 오픈 채팅방 활성화 등의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유오식 공공협 회장은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디자인 실무자와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디자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공공협 정책디자인 분과와 함께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한 이승호 유니스트 교수는 “공공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상향식으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가장 시급한 주제를 선정한 것” 이라며,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정책디자인 담론이 국내의 맥락에 맞게 발전하고 있는 현장이다.” 라고 평가했다.



<사진설명>

지난 2월 26일(수) 성남에 소재한 KIDP 본원에서 개최된 ‘제1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지난 2월 26일(수) 성남에 소재한 KIDP 본원에서 개최된 ‘제1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